



미 증시, 연휴 앞두고 상승폭 제한

미국 증시 리뷰

22 일(수) 미국 증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함에도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10 년물 국채금리 추가 하락, OPEC+의 감산회의 연기로 인한 유가 추가 하락에 힘입어 상승 (다우 +0.53%, S&P500 +0.41%, 나스닥 +0.46%)

10 월 내구재주문은 MOM -5.4%(예상 -3.4%, 전월 4.0%)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했으나, 항공과 운송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주문은 MoM 0.0%(예상 0.1%, 전월 0.2%)으로 예상치 부합. 11 월 에어쇼를 앞두고 보잉 여객기 계약이 정체 되고 산업 기계 수요가 약화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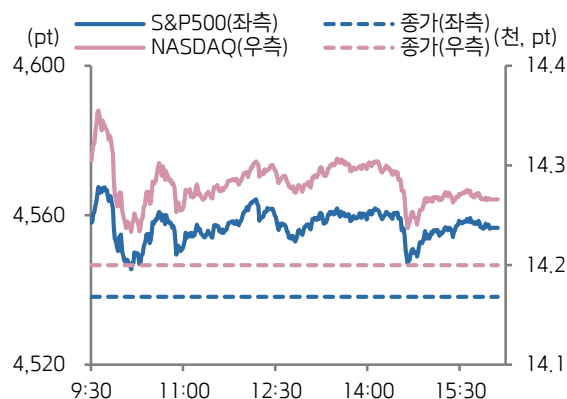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9 만건(예상 22.5 만건, 전주 23.3 만건)으로 예상치 하회. 2 주 연속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84 만건(예상 187.5 만건, 전주 186.2 만건) 기록하며 8 주만에 감소. 고용시장 둔화 속도는 완화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비정형적으로 고용을 유지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계절적 조정치 이전의 실제 청구액은 여름 이후 최고수준으로 증가.

11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61.3(예상 60.4, 전월 63.8)로 예상치 상회했으나 4 개월 연속 하락.

1 년 기대인플레이션 4.5%(예상 4.4%, 전월 4.2%), 5 년 기대인플레이션 3.2%(예상 3.2%, 전월 3.0%)로 전월대비 상승. 집계측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곧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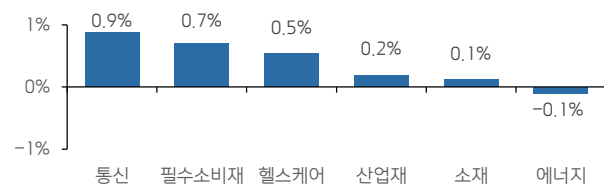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0.1%)만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통신(+0.9%), 필수소비재(+0.7%), 헬스케어(+0.5%)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 엔비디아(-2.46%)는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성장세에 매출 전년 대비 206%, 순이익 1200% 급등하는 실적을 발표, 2025 년 전망 역시 데이터 센터 성장세와 중국의 강력한 수요로 대중 수출 규제에 영향받는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언급. 그럼에도 선반영 인식 및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제한의 여파가 4 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약세.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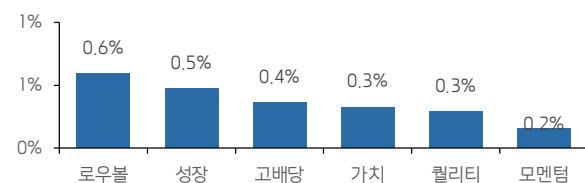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11.70	+0.05%	USD/KRW	1,300.48	+0.87%
코스피 200	336.81	+0.07%	달러 지수	103.88	+0.3%
코스닥	814.61	-0.29%	EUR/USD	1.09	+0%
코스닥 150	1,282.44	-0.67%	USD/CNH	7.16	+0%
S&P500	4,556.62	+0.41%	USD/JPY	149.55	+0.01%
NASDAQ	14,265.86	+0.46%	채권시장		
다우	35,273.03	+0.53%	국고채 3년	3.665	+2.6bp
VIX	12.85	-3.75%	국고채 10년	3.760	+5bp
러셀 2000	1,795.54	+0.69%	미국 국채 2년	4.900	+2.7bp
필라. 반도체	3,744.96	+0.33%	미국 국채 10년	4.404	+1.2bp
다우 운송	15,032.28	+0.23%	미국 국채 30년	4.537	-1.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52.02	+0.46%	WTI	77.1	-0.86%
MSCI 전세계 지수	689.60	-0.12%	브렌트유	81.74	-0.86%
MSCI DM 지수	2,999.87	-0.17%	금	2013.2	-0.43%
MSCI EM 지수	988.47	+0.31%	은	23.69	-0.76%
MSCI 한국 ETF	62.91	+0.05%	구리	376.3	-1.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9.0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빅테크주들간 혼재된 결과가 국내 IT 주에 미치는 영향 2. 미국 휴장 및 블랙프라이데이 결과를 둘러싼 대기심리의 장중 국내 증시 유입 가능성 3. 에코프로머티 등 개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 월 내구재주문(-5.4%YoY, 컨센 -3.1%)이 쇼크를 기록하는 등 4 분기 이후 미국 주요 지표들이 대체로 부진하게 발표되고 있는 모습.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도 33pt 대에 진입하며 7 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점도 3 분기 약 5%대 가까운 고성장이 피크아웃이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 11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61.3, 컨센 60.4)가 개선되긴 했으나, 세부 항목 상 소비자자기대지수(56.8, 컨센 56.9)는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연말 소비모멘텀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

이는 연준의 내년 정책 전환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시장금리의 레벨 다운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을 이전보다 덜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는 양상. 22 일 기준 미국의 금융여건지수는 99.8pt 대로 예상보다 매파적인 결과로 1 개월 넘게 증시 급락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9 월 FOMC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참고. 물론 미국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지표 악재는 연준의 긴축을 약화시키므로 증시 호재”가 아니라 “지표 악재는 경기 침체이므로 증시에도 악재”라는 논리가 생성될 여지가 있음.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 긴축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일정부분 선 반영 되어온 것으로 판단.

결국, 침체 진입 여부보다는 침체 강도의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성의 관건이 될 것. 과거 침체 진입 시점과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시장, 유럽,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의 순차적인 모멘텀 회복 등을 고려 시 미국의 침체 강도는 깊은 침체보다는 얕은 침체 진입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이 침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전 침체 시기에 그랬던 것과는 달리 주식에 대한 보수적인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예상에 부합한 FOMC 의사록에 따른 안도감,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엔터 등 주요 업종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파로 변동성 장세를 전개하면서 혼조세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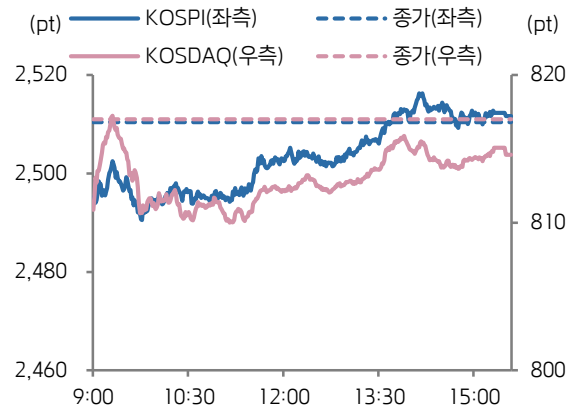
금일에도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 및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결과 대기 심리, 마이크로소프트(+1.3%), 엔비디아(-2.5%)와 같은 미국 빅테크주들간 혼재된 주가 흐름이 국내 증시의 상단을 제한하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최근 국내 증시는 주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시즌 모멘텀 소강, 수급 변동성 확대, 미국 경기를 둘러싼 노이즈 등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단기 주도 업종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일례로 코스피가 1.7% 상승했던 11 월 2 주차 수익률 상위 업종은 디스플레이(+5.5%), 운송(+5.5%), 호텔레저(+4.4%) 순. 코스피가 2.5% 상승했던 3 주차에는 자동차(+6.5%), 호텔레저(+5.1%), IT 가전(+4.6%) 순. 코스피가 1.7% 상승했던 4 주차에는 조선(+7.9%), IT 가전(+4.6%), 에너지(+4.5%) 순으로 집계. 2 주 연속 상승한 호텔레저의 경우, 공매도 금지 발 솟커버 기대감에서 기인한 단기 수급 영향이 컸으며, IT 가전은 지난 금요일에 상장한 에코프로머티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판단. 이는 상기 두 업종 역시 주도 업종 혹은 주도 테마로서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함이 상존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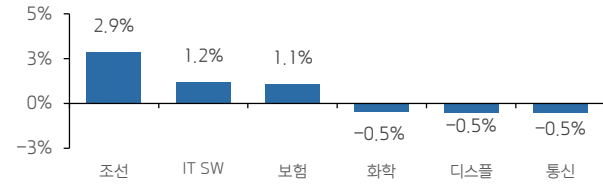
이처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업종 간 수익률 상위권의 빠른 교체 현상은 벤치마크 지수를 이기는 작업을 쉽지 않게 만들고 있는 모습. 결국 업종 관점에서도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업종 내에서도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 그게 아니라면 연말 대주주 양도세 물량 출회 가능성, 양호한 외국인 수급 환경, 11 월 20 일까지 수출 지표 개선(+2.2%YoY, 이미 7 월을 기점으로 수출은 바닥을 통과) 등을 고려해, 수출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연말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도 대안이라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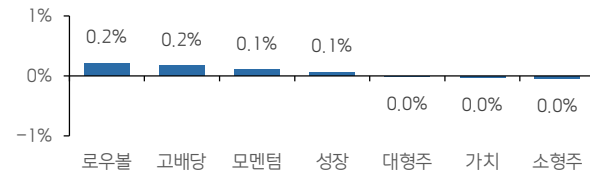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